

화재로 인한 사인규명

방랑시인 김삿갓이 회양땅에 들렀을 때 회양군수 이범호는 김삿갓이 영월백일장에서 장원급제했던 김병연임을 알아보고 자기가 당시 차석을 했던 사람이라고 통성명하고는 치도에 관한 지혜를 하고해달라며 붙잡고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이에 대해 죽은이의 부인 말에 의하면 집에 불이나서 남편이 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친척들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그사람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마누라가 남편을 죽인 뒤에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 집에 불을 놓아 시체를 태워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또에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고소를 제기해 왔다.

그래서 사또는 염탐꾼들을 놓아 그 여인의 소행을 소상히 알아보니 그들 부부는 평소 금슬이 매우 나빴고 여인의 성품이 간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인은 남편을 살해한 뒤에 계획적으로 불을 놓아 불에 타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 틀림없이 보이나 최후의 심판을 내리려면 확고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고민중이라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사체가 보존되어 있음을 알고는 남편을 죽여 불에 태워버릴 정도로 지능적인 여자라면 재판도 반드시 공개로 하고 시체 검증도 만인의 주시하에 해야만 뒷말들이 없을 것이라며 구증방법을 일러주었다. 불에 타서 죽은 것과 죽은 사람이 불에 다시 탄 것과는 시체를 검사해보면 구별할 수 있어서 사또는 모여든 군중앞에서 이를 증명키로 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죽었을 경우에는 입안에 재가 가득하게 쌓이게 되고 죽은 사람이 불에 탔을 경우에는 입안이 깨끗한 법입니다. 모두가 시체이기는 마찬가지이면서도 두시체의 입안이 왜 이렇게 다른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을 때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호흡을 했기때문에 입안에 재가 들어갔을 것이고 죽은 사람이 불에

탈 경우에는 몸은 비록 불에 탔으나 호흡을 안했으니 입만이 깨끗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또는 이어서 미리 준비해둔 두마리의 돼지를 동헌마당에 끌어내어 한마리는 산 채로, 한마리는 죽여서 불을 태워보는 거창한 실험을 하게 되었다. 살아서 불에 타 죽은 돼지의 입안에는 재가 시커멓게 쌓여있건만 죽은 뒤에 불에 탄 돼지의 입안에는 재가 하나도 없음이 나타났다.

그리고나서는 이제 저 여인의 남편되는 사람의 시체를 검사해보기로 합시다. 만약 시체의 입안에 재가 있으면 그사람은 단순히 불에 타 죽은 것이 분명하니까 저여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 시체의 입안이 깨끗하다면 저 여인은 남편을 죽인후 불에 태워버린 것이 분명할 것이니 그 때에는 살인죄와 방화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보니 시체의 입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입안처럼 깨끗했다. 회양군수 이범호는 백성들로부터 천고에 없는 명



관이라는 청송을 듣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사실여부나 입안의 재의 유무로 사망원인을 가릴 수 있었다는 것의 옳고 그름은 그 당시의 사정과 지금과의 가연물성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일로 봐두고 겁안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당시의 과학적 증거노력만은 높이 사야 될 일이다.

이렇듯 화재현장에서 생명체가 소사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화상을 입은 부상자는 부상경위를 조사하면 되고 발화부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체를 부검하여 기도의 매연유무, 위속 내용물과 혈액, 뇨 등의 독성 유무, 경부압박, 창상, 타박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인을 밝힐 수 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열은 생명체에게 가내운 화상에서 사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화재실험에 의하면 1.5m높이에서 온도가 65℃를 넘으면 그 속을 통과할 수 없고 145℃가 되면 견딜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물론 수초동안은 견딜 수 있으나

그것도 습기가 있는 상태면 전혀 견딜 수가 없다.(40℃ 목욕탕물 속에는 견디기 어려우나 100℃ 사우나실내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공기과 물의 밀도차 때문인 것이다.)

화상은 1도에서 4도까지로 구분하는데 1도라 함은 홍반, 즉 피부나 점액이 충혈하여 빨갱게 되는 것으로 고열이 급격히 작용하여 사망해 버리면 홍반은 나타나지 않는 수도 있다.(사반은 사람이 죽어 심장이 멎으면 중력때문에 피가 사체의 낮은 쪽 피부로 물리고 이로 인해 그부위가 암적색을 띄는 것이므로 사반이 나타나는 자리에 홍반이 있는 경우는 구별이 어렵게 되나 사반이 없는 위치에 홍반이 있으면 이것은 생전에 고열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화상이 2도라 하면 열을 받은 피부가 염증을 일으켜 표피밑에 장액이 채워져 차차 수포를 만든다. 수포내 장액은 다소 혼탁한 색을 띤 액체지만 젤라틴과 같은 젤리상태로 굳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 수포의 홍반은 생활반응이어서 생

체소사로 보는 근거가 된다. 수포는 사망직후에 열이 작용해도 생긴다고 하지만 동물을 실험한 결과로는 다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보여 전형적인 수포는 사후에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사후에 생기는 것은 대개 수포내에 장액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부풀기는 하나 장액은 들어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수포가 처음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화열작용에 수포가 없어지고 타 버리면 외관에 의한 현상감별은 상당히 어렵게 된다.

3도화상은 괴저성 화상이라고도 하고 피부와 피하조직의 단백질이 고열로 황색 또는 암갈색의 가피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피성 화상이라고도 한다. 이를 확대해 보면 피부는 가죽같고 혈관내 혈액은 응고되어 사망자의 경우 수열에 의한 가피현상은 생활반응임을 나타내고 주위피부가 1도 화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생활반응임을 알 수 있게 된다. 4도는 탄화 또는 회화성 화상 상태이다. 이것은 생전에 고열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㉞



송 재 철
(화재조사 전문가)